

2022년 일어일문학과 취업탐구박람회

~ 부동산/금융 ~

일어일문학과 학생회 ゆめ

금융권 취업 준비

정량적 스펙

학교 이름, 학점, 자격증, 어학점수
CFA, FRM 등 고급 자격증 취득
'고고익선 다다익선'

작은 것부터!

정성적 스펙

교내 대외활동, 교외 대외활동, 주요기업인턴
자소서/ 면접에서 당락을 기르는 요인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요리가 나온다'

CFA(재무분석가) ~?

미국 투자관리 및 연구협회인 CFA Institute에서 시행하는 증권금융&재무관리 분야의 최고 자격 시험.

1차 매년 2회 (6월, 12월)

2,3차 매년 1회 실시

시험 응시 자격 조건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졸업 예정자)

2) 4년 이상 경력자

* 무경력 대학생은 CFA level 1 까지만 취득 가능

3)직장과 대학을 합하여 4년 경력 충족자
(군 경력+대학생경력 포함)

금융공기업의 대표적인 자격증

전체 금융 자격증 중 가장 난인도 높음

=> 취업에 유리

FRM(국제재무위험관리사) ~?

미국 공인 국제 재무 위험관리사 시험으로 각종 금융 상품의 상품구조와 그에 따라 재무분석을 동시에 평가하는 시험.

미국 GARP금융협회에서 주관.

이 기관은 미국은행, 골드만 삭스, 중국 은행 등 세계 100위권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협회

=> 금융/ 재무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 또는 실무자에게 유용

1년에 2회 실시 (5월, 11월)

응시 자격 제한 없음.

CFA와 FRM 영어시험이기 때문에 독해능력이 매우 중요.

주요 은행 채용 트렌드 변화

국민은행	경력직 위주의 핀셋 채용 방침 확정
신한은행	디지털/ICT 수시 채용 발표 및 ICT 직무 특화 채용절차 도입 하반기 신입 공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도입 검토 중
하나은행	그룹 차원의 ESG 특별 채용 진행 ESG 특별 채용이란? 여행, 패션, 디자인, 미디어, IT 솔루션 등 비금융 부문에서의 경력자 모집에 초점
우리은행	디지털/IT 부문 국한 채용 진행

출처: 조선비즈

**+ 금융권에서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행됨!!**

부동산 PE~~?

PE란 ?

PE(Private Equity)는 투자전문 운용사가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기관, 기업 등 주식 및 투자증권에 투자하고 기업체질 개선 등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를 말함.

PE의 주목적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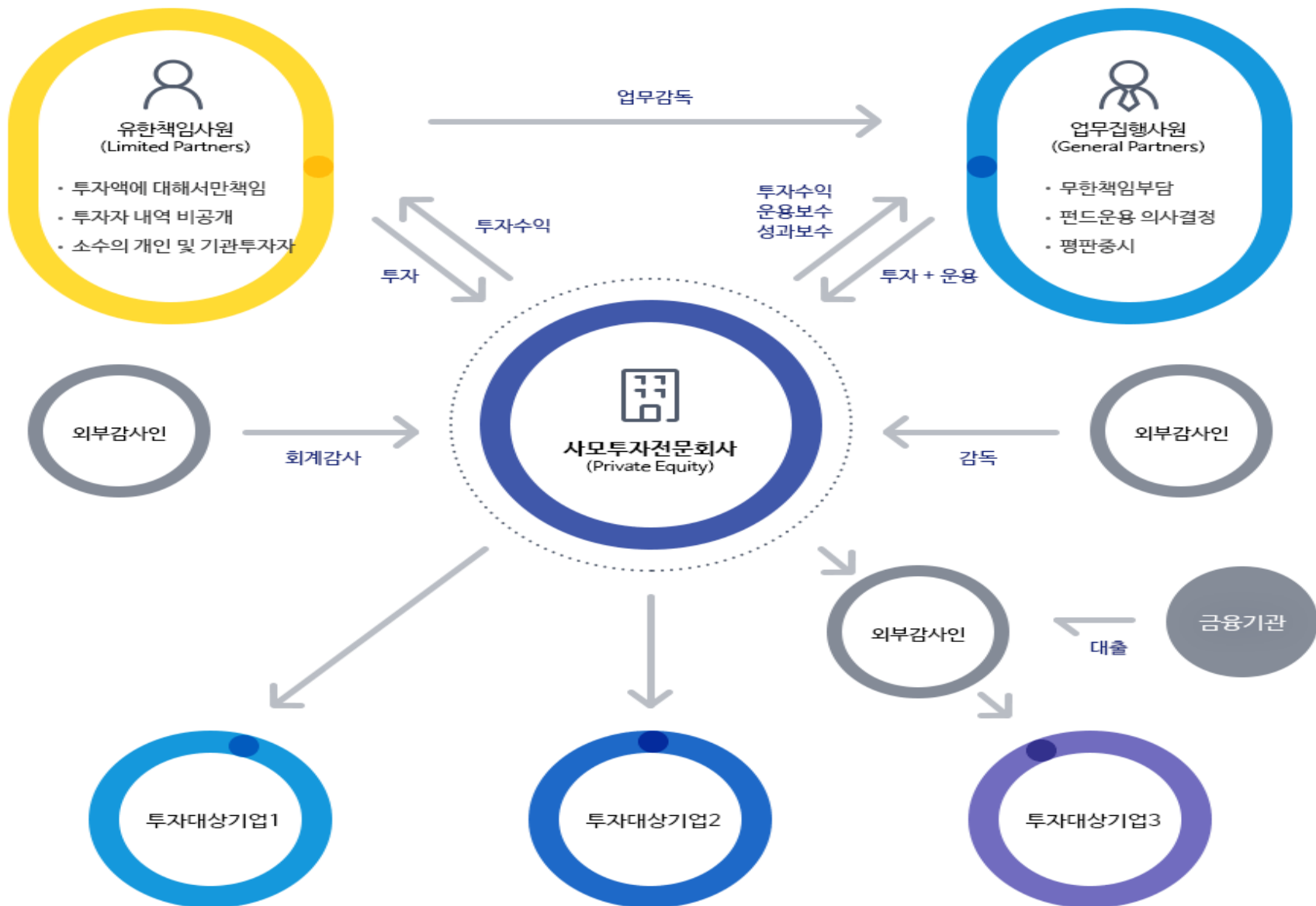
펀드에서 필요 시 차입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타 투자기구와 차별되고 있는 점.

PE할 때 중요한 점

얼마나 흑자를 내는가?

영업 이익이 잘 나오는가?

* PE의 조직구조



실제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대상의 수익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 &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분리되어 구성
각 기업마다 상이함 위는 신한투자증권의 예시.

부동산 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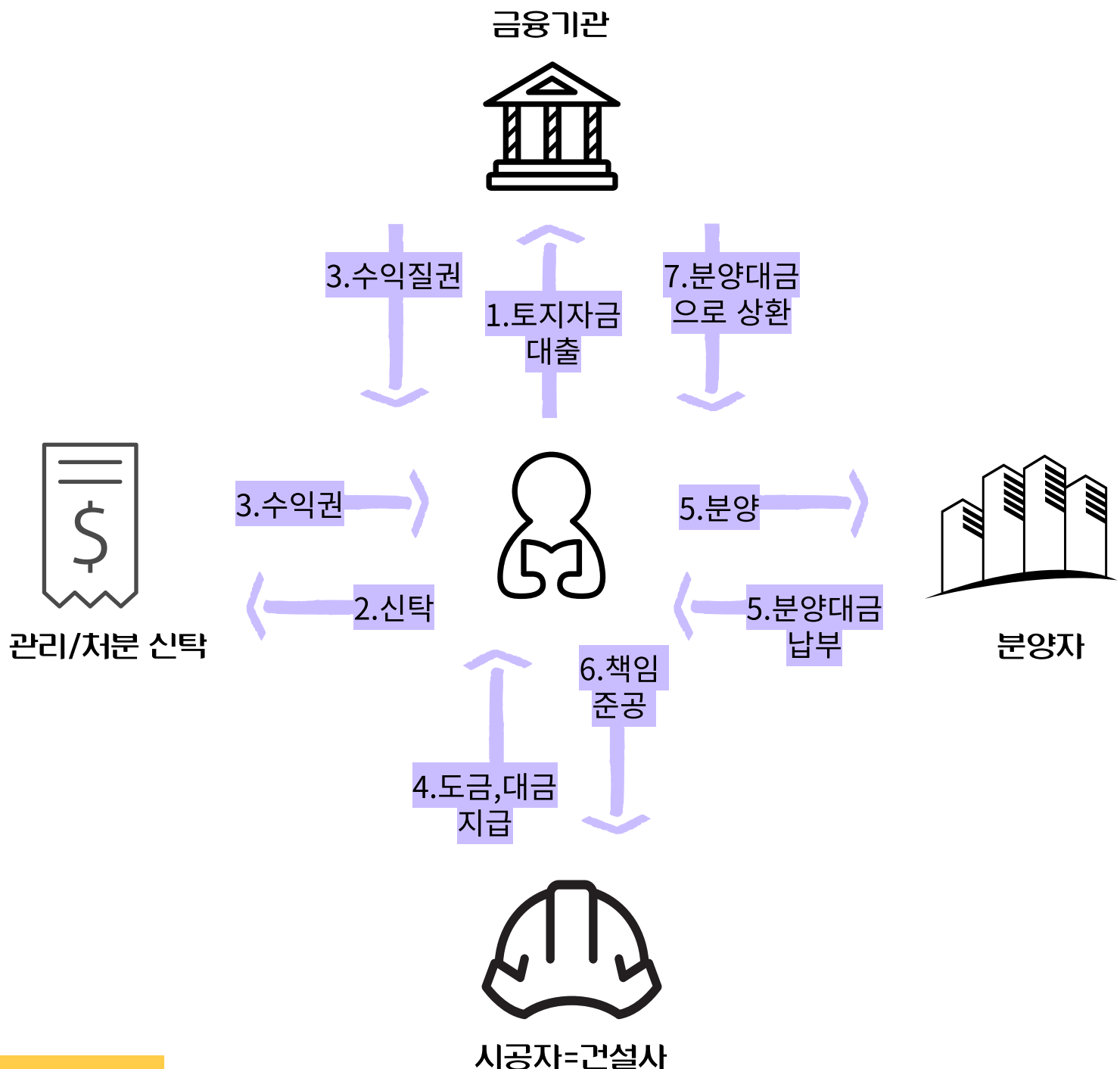
그 중 부동산 PE는 하이리스크!

건물 분양 리스크(분양 X)=> 원금회수 불가 (은행: 싫오..)

없는 것에 투자하는 존재(리츠랑 다름)

술자리 많음-> 못버티고 탈주

건설사가 파산하면 PE도 무너짐.



면접 질문

학과 내 가장 흥미있었던 과목 / 분야

결과 VS 과정

창의적으로 문제해결한 경험

롤모델

자격증에 대해 설명

PE의 정확한 일





현직자 인터뷰

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신 일이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어학 점수나 자격증 같은 스펙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저만의 경험을 쌓았어요. 관련 대외 활동도 많이 했고, 인턴활동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점을 좋게 봐주신거 같아요.

지금 하시는 일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먼저 장점으로는, 연봉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편이죠. 그리고 금융권쪽에서 일하면 부모님도 좋아하시고요. 단점이라면, 부동산 PE 계열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해서, 술자리가 잦아요. 술에 약하신 분이면, 조금 힘들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자 인터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본인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스펙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받고 싶은 것을 면접관분들께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성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최대한 어필해주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결과가 안좋은 경우도 있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자괴감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회사가 있고, 계속 노력하시면 그것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